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생 바로알기

호남 문화

법과 질서

시·설

표해록의 현대적 진화-최부, 江南을 열다



조현중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변화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은 역사인물에 대한 시각의 확장이다. 우리의 역사인식이 서양에 치우쳐 독일의 괴테를 말하면서도 동시대를 살았던 정약응은 모른다고 애틀러했던 시절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우리 고장 나주 태생 최부(崔洵, 1454~1504)와 그가 남긴 표해록(漂海錄)도 예외는 아니다. 탐진 최씨 최사조의 후손인 그는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문하에 들어가 김일손, 정여창, 김광평 등 당대 일류의 신진학자들과 수학하였다.

김종직은 학문이 깊을 뿐 아니라 절의를 중시한 신진사림의 영수로서 조의제문을 통해서 세조를 탄핵한 인물이다. 김종직과의 만남은 학문과 역사적식은 물론이러니와 훗날 그의 운명까지 좌우하였다. 나아가 절의를 대표하는 호남사림의 정신적 맥락이 시작되는 단서이기도 하다.

역사학계는 최부에 이르러 김부식류에 의해 경도된 백제 편향을 바로잡고 객관적 역사편찬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1485년 서거정 등과 함께 편찬된 동국통

감(東國通鑑)이 그것이다. 삼국을 대등한 관계로 서술한 것이나 기사조성과 마찬가지로 산려를 문화사적 흐름으로 이해한 시각은 사뭇 달라진 역사인식이라 할 만하다.

특히 최부는 새로 추가된 사문 204편 중 118편을 홀로 썼다. 이 사문을 통하여 그는 명분을 존중하고 삼강오륜의 위계를 강조함으로써 세조와 훈구세력을 겨냥했다.

조선 초기의 신진 사대부로서 최부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것은 표해록이다. 1487년 제주도에 부임한 최부는 이듬해 아버지 최부의 부름에 당하여 고향 나주로 돌아가던 중 주자도 부근에서 표류하였다.

그 뒤 절강성에 도착하여 북경과 요동 반도를 거쳐 귀국하게 되는데, 표해록은 이 과정을 담은 151일간의 일기체 기행문이다. 43명의 일행을 뒀던 동지나해의 거센 바람과 파도를 넘어, 8천리 대장정을 단 1명의 나코자 없이 완수한 한편의 드라마틱한 서사시이며 표해문학의 백미이다. 사선을 넘나드는 대목마다 조선의 관리이며 선비인 최부의 의연한 풍모는 시종일관 우리를 압도한다.

표해록은 알려지지마자 성종을 비롯하여 국제정세, 특히 강남사정에 목말라했

던 조선 지식인들을 크게 매혹시켰다. 더러 북경이나 일본사정은 내왕사신의 기행문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강남지역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조선에겐 강남은 소상팔경의 명소와, 두보의 악양부와 동정호 등 아름다운 수목화와 문학의 산실로서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그저 봄의 전령인 제비의 고향일 뿐이었다. 이제 강남은 물론 중원의 자연과 지리, 풍습의 장면들은 최부의 표해록 속에서 능동적으로 즐기고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억에 의존하였지만 그의 기록에는 빈틈이 없었다. 항주에서 북경에 이르는 동안 그가 이용한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의 제방수문의 기술과 비문에 관한 기록은 중국학자연구의 중요한 문건으로 주목 받고 있고, 관계를 위한 강남의 수차(水車)는 충청도지방의 가뭄 해소를 위해 직접 제작 사용된 바 있다.

그만큼 표해록은 국내는 물론, 이미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1769년 일본에서 당토행정기(唐土行程記)로 알려진 이래, 미국과 중국학자들의 번역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중국의 저진자(葛振家) 교수 등은 최근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1299)과 예닌(圓

仁, 794~864)이 남긴 입당구법승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능가하는 세계 3대 중국기행문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표해록에 나타난 최부의 여정은 차별화된 컨셉으로서 새롭게 진화하여 여행 마니아들을 유혹하였다. 500년 전 최부가 걸었던 길을 따라나서는 역사 여행이 그것이다. 그가 이동했던 전지역을 답사하는 스타터모임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도 자국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러 최부의 고향 나주를 찾아 묘소를 방문하는 여행 프로그램(2010)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표해록은 최부에게 정치적 인 시련이었다. 왕명이라 하더라도 부친상을 치르지 않고 저술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이다. 명본론의 탓이었다. 그리고 어두운 축음의 그림자가 조선을 감싼다. 위태롭던 최부는 연산군의 폐정과 훈구세력의 탐욕을 비판하다 김종직의 제자로 찍혀 광경도 단천으로 유배당하고(무오사화, 1498),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갑자사화, 1504) 사화의 망명이었다.

〈국립광주박물관장·문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고칼럼



이달

햇살이 따뜻하다. 봄이 어느덧 성큼 내 곁에 와 있다. 여제는 땅 끝 사구미에 계시는 동천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이 사는 집은 바다가 보이는 가파른 언덕위에 있다. 오후 햇살이 파도에 부셔서 은빛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마당 뒤편에는 제주도 수선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다. 수선을 백련사에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좀 일찍 오지 꽃이다 찼는데' 하시면서 이왕이면 많이 심어주세요 수선을 있는 대로 뽑아 주셨다.

제주도 수선은 늦은 겨울에 핀다. 매화가 웅골지게 봉우리를 품고 있을 때 수선은 꽃을 피운다.

제주도에 귀향생활을 하던 추사가 가장 사랑했다는 꽃, 수선! 물도 설고 음식도 맛

꽃이 아니라 희망을 심는다

지 않아 고생하던 추사에게 제주도 생활은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겨울 찬바람은 추사의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게 했다.

겨우내 병으로 시달려 허약해진 몸을 추슬러 창문을 열어 본 추사는 눈물을 터뜨린다. 돌담 밑에 수선이 눈발위에 꽃을 피운 것이다.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올 거라는 것을 수선은 온 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돌담 밑에서 희망을 발견한 추사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수선은 추사를 위로했다.

일지암에 살 때다. 은사 스님이 조그마한 텃밭에 매화나무 10여 그루를 심으셨다. 매일 아침 매화에 물을 주는 일이 내 몫으로 돌아왔다. 암자에는 물 호스가 없었다. 그래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야 하는데 이 일이 지루했다. 빨리 할 요령으로 바가지로 한 움큼씩 물을 주고 돌아서는데 불호령이 떨어졌다. 물을 흠뻑 쥐어야지, 요령을 피운다는 것이다. 한 나무에 한 양동이 또는 두 양동이, 그렇게 10여 그루에 물을 주면 오전시간이

다갔다. 그 후 몇 해 후인가, 복일 차 농장에 80여 그루의 매화나무를 심고 또 물을 준 적이 있다. 이번에는 다행히 물 호스가 있던 한데 짚었다. 그날 한나절을 나무에 물주는 일로 보냈다.

그때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마치못해서 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내가 10여년이 흐른 지금 백련사에 와서 울 해는 무슨 나무를 심을까하고 마음을 설린다. 작년에는 제주도 담팔수 나무와 구절초를 그 전에 매화나무와 고려영산홍, 매발톱꽃을 또 그 전에 금복서를 심었다.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한다. 마치못해서 심었던 매화가 이른 봄 향기로, 일지암 연못가에 3년 만에 꽃을 피운 수선은 생명의 신비로움을, 볼타는 듯한 고려영산홍은 내 기억 속에 진한 화상자국을 남겼다. 옛 스승들의 글도 내게 사색의 깊이를 더한다.

초의스님과 다산 정약응은 조그마한 초당에 머물면서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꾼다. 다산이 제자였던 황상에 제 준 '제황 상유인집'에는 이런 글이 있다. '담장 안에는 석류와 치자, 목련 등 갖가지 화분을 각기 품격을 갖추어 놓아둔다. 국화는 가장 많이 갖추어서 48종 정도는 되어야 잘 갖추었다 할 만하다.' 국화가 48종이나 있기는 할까? 초의스님은 일지암에 연못을 파고 연못가에 영산홍을 심으셨다. 그의 시 영산홍이다.

'연못을 파니 환한 달이 잠기고 낚시대 던지니 구름 생까지 통하도다.

눈을 가리는 꽃가지들 꺾으니 석양 하늘가에 은몽 아름다운 산이구나

연못가에 심은 영산홍이 피면 다홍색 꽃 무리 연못에 투영되고

달이 연못에 잠기면 우주의 섭리가 물속에 잠기는데

그곳에서 한 잔 차를 마시면 차(茶)와 선(禪)이 하나가 되는

신선의 경지, 이것이 다선일여(茶禪一如) 아니겠는가.'

연못을 파고 영산홍을 심고 차를 마시는 일상에 우주의 섭리가 담길 뿐 아니라 선(禪)이 된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허투루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른 봄, 꽃과 나무를 심는 나는 꽃이 아니라 희망을 심고 있다.

〈백련사 총무스님〉

기고



박성호

최근 지구상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물 수요의 급증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UN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 사용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각종 개발로 국토의 담수 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인한 1인당 재생가능한 수자원량이 적기 때문에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연중 강수량의 약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연중 강수량의 약 31% 정도가 활용도 하지 못하고 바다로 바로 흘러가 버린다.

이처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한정돼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및 체계적인 수도시설 운영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수도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상승과 정부의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로 이전

빈틈없는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보다 고품질 수도물 생산, 수질사고 대응 및 수질검사 서비스 향상 등 운영내실화를 통한 고품질 수도물 생산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암댐, 장흥댐, 평림댐을 수원으로 광주·전남 21개 시·군에 하루 120만톤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 K-water 전남지역본부에서는 중단없는 용수공급과 고품질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안정화 및 수질관리'에 다음과 같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는 관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수도물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계통간 비상연결 관로를 설치했으며, 지방 상수도와 광역 상수도간은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로 시설간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계획된 노후관로 교체나 이설 공사 시 단수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신기술인 '부단수 차단공법'을 적용해 단수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광주시, 목포시 등에 하루 28만톤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의 예상치 못한 수도사고에 대비하고 자 도수관로중 내부에 물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터널(7.8km)구간을 조절지화해 운영함으로써 2시간 이상의 공급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취락 시설을 사전에 발굴해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의 관로사고에 대비해 지난해 화순지역에

해오소 사전관리 강화와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 취수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정수장 운영관리 능력을 미국의 수도협회(AWWA)가 정한 최고수준인 '5-Star' 수준으로 수도물 생산체계를 강화했으며 친환경 정수장 관리 및 저탄소 녹색정수장 구현을 위해 탄소배출량 인증을 획득해 고품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남권 수질검사소가 개소돼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수도물 품질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수도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및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 단수사고 발생시 배수지에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과 관로 보수 전·후의 배수 및 중수 시간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수시간 예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전남지역 수도사업장에 확대 적용해 수도사고 위기관리 능력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셋째 고품질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노력으로는 광주·전남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호를 비롯해 관리중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질자동 측정장치를 설치해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상수원의 수질오염 위

험을 사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수장 운영관리 능력을 미국의 수도협회(AWWA)가 정한 최고수준인 '5-Star' 수준으로 수도물 생산체계를 강화했으며 친환경 정수장 관리 및 저탄소 녹색정수장 구현을 위해 탄소배출량 인증을 획득해 고품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에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남권 수질검사소가 개소돼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수도물 품질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수도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및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 단수사고 발생시 배수지에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과 관로 보수 전·후의 배수 및 중수 시간을 자동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단수시간 예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전남지역 수도사업장에 확대 적용해 수도사고 위기관리 능력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셋째 고품질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노력으로는 광주·전남의 최대 식수원인 주암호를 비롯해 관리중인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수질자동 측정장치를 설치해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상수원의 수질오염 위

민주, 호남 민심 잃고 총선 승리할 수 있나

4·11 총선 후보 등록이 22일 시작됐지만 민주통합당의 공천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정권 창출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후보 공천이 현실성 없는 국민 경선으로 투신자살 사태를 빚은 것은 물론 각종 동원 경선 의혹에 얼룩지던 공천이 당내 역학구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삼척'만 남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과 야권연대에 서로 잠음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MB 정권 심판론'이 아닌 '민주통합당 심판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 대표가 21일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각오와 다짐을 약속한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현재 민주당의 당내외 분위기는 심각하다. 공천이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친노·486 등 당내 주류 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이날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에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이 불참한 것도 이런 이유에 있다.

후보 공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민심 이반도 확산 추세다. 현실성 없는 국민 경선으로 투신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동원 선거 후유증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황이다.

현역 의원들이 조직력을 기반으로 100% 재공천돼 민심의 변화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광주 서구갑의 경우 한달 가까이 공천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해 혼란을 자초했다. 이번 공천을 최악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약화하고 호남 정치권의 위기 가속화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호남 민심을 잃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인가.

장 교육감 사립 교장단 전의 적극 수용하라

광주 사립고 교장들이 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고교 배정방식 변경 추진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변경안이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라 학생을 고루 배정하는 방식이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계 사립고 교장단은 장휘구 교육감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지난 15년 동안 유지해온 고교배정방식을 학생·학부모 의견을 위대한 채 소수 의견에 따라 바꾸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립 격차 해소를 명분 삼아 일반계 고교의 30%인 공립고를 살리기 위해 70%인 사립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교 배정방식은 선지망에서 정원의 40%를 뽑고, 60%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1곳을 배정한다. 지난 1975년 평준화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부터 40%를 유지해왔다. 최소한의 선택권

부여와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변경안은 선비율을 축소한다는데 강제 배정방식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립학교의 실력 향상 등 주구재는 도시시한 채 학생들의 선택권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폼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휘구 교육감은 "공·사립 격차 해소를 명분 삼아 일반계 고교의 30%인 공립고를 살리기 위해 70%인 사립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교 배정방식은 선지망에서 정원의 40%를 뽑고, 60%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1곳을 배정한다. 지난 1975년 평준화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부터 40%를 유지해왔다. 최소한의 선택권

無等鼓

1992년 11월 신문사 편집국에 첫 출근해서 본 낮선 광경 가운데 하나가 140자 원고지였다. 원고지 하면 200자 원고지만 알던 시절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140자 원고지는 당시 수습기자들에겐 눈물의 원고지로 악명이 높았다. 수습기자 교육이 워낙 '도제식(徒弟式)'이라 기사 작성에서도 선배에게 일일이 첨삭지도도를 받는데 무사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힘들어 작성한 원고지가 빨간 사인펜으로 난도질당하는 것은 예사고, 성질 고약한 선배는 "이것도 기사냐"면서 원고지를 면전에서 찢거나 던지는 일도 흔했다.

왜 하필 140자일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수많은 기사 작성 과정을 거치면서 비밀을 알게됐다. 호흡이 짧아야 하는 기사의 특성상 140자 원고지를 사용하다 보면 200자 원고지에 쓰는 것보다 불필요한 표현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문장에 힘이 실린다. 1990년대 중반 노트북이 지급되면서 140자 원고지는 사라졌지만 기자들

엔겐 이러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요즘은 140자가 일반화 됐다. 2006년 3월 22일 트위터라는 SMS(단문 메시지서비스)가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지금은 5억 명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이 140자의 트윗으로 소통하면서 울고 웃고 있다. 중동의 자스민 혁명도 트위터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될 정도로 140자의 위력은 커졌다.

트위터가 140자 서브스가 된 것은 미국의 휴대전화 SMS가 160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160자에서 사용자명과 플론(:)에 필요한 20자를 빼다보니 실제 보낼 수 있는 문자는 140자가 된 것이다.

140자에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트위터의 매력은 촌철살인이다. 장문의 글보다 정곡을 찌르는 한 문장이 주는 효과가 훨씬 큰 때가 많다. 수습기자를 울고 울렸던 140자 원고지가 트위터라는 서비스로 되살아나 감회가 남다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0-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건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립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